

초고층 아파트 주동의 진입 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dmission Space Planning of a Major Building in Super High-rise Apartment

노연수* / Roh, Yeon-Soo

안은희** / Ahn, Eun-Hee

이현희*** / Lee, Hyen-Hee

Abstract

Here this Study is purposed importance of Public area and attend to planning of Admission Space so foster the growth of public area in super high - rise building apartment at present that, for contribution so Consider about Admission Space planning purpose of a Major building in super high - rise building apartment.

The process of this Study 1) Consider Indispensable action and Choice action in theory of 'Jan Gehl'. 2) Express one's condolence about two housing development of super high - rise Apartment in Busan City. 3) Analysis by theory of 'Jan Gehl'. about two housing development of super high - rise Apartment in Busan City. 4) I have a result as being Comparison two housing development

키워드 : 집합 주택, 주동 진입, 필수적 활동, 선택적 활동

Keywords : A Multi - Family House, A Major Building, Indispensable action, Choice ac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집합주택이 주거형식의 70%이상을 차지하게 된 지금 도시주거생활에서의 그 비중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집합주택은 불특정 다수세대가 거주하는 곳이므로 계획 시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야하며 따라서 공용공간의 역할은 더욱 크다.

공용공간의 중요성은 집합주택의 초고층화가 가속되고 또한 고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강조되는 공용공간이 있으며 초고층 아파트는 공용공간에 대한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대하게 되는 주동 진입 공간은 세대입주자는 물론 방문자가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리하며, 동시에 공간 인지가 용이 하여야하는 공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용공간과 진입 공간의 활용방안을 점검하고, 진입공간의 계획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재 초고층 아파트에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초고층 아파트 주동의 진입 공간 계획 방향에 대하여 고찰 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은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해안지역의 즉 동일지역 동일조건에서 밀접하게 위치하고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준공된 두개의 단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두 단지는 지역적으로 동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단지의 형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일층 단지 형태인 D사 단지와 와 Deck형 단지에 해당하는 L사 단지는 외관디자인의 차이와 사용상의 차이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 착안하여 주동 진입 공간의 계획 및 사용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집합주택 진입 공간을 주거환경에서 분류하면 공용 공간에 속하는¹⁾ 단지의 진입을 시작에서 보고 주호의 현관까지 진입할 때 만나는 공간을 주동의 진입공간의 범위이다. 조사대상인 두 단지에 대하여 주동으로 진입하는 차로, 보행로 각 각의 경우를 조사 한다.

진입공간에 대한 연구방법은, 이론적인 연구를 통해 그 기준에 적합하게 적용되었는지를 대입시켜는 방법으로 전개한다. 주동 진입에 대해 행해지는 행위를 구분하고 행위의 요인으로 조사 한 후, 기준에 의해 문제점을 찾고자 한다.

* 정회원, 강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석사과정

** 정회원, 강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박사과정

*** 정회원, 강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부교수

1)고윤영, 주거환경 분류에서 계단, 현관통로 주차장 휴게소 필로티, 공원 광장이 공용 공간에 속한다,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2. 진입 공간 이용의 활용 방안

주동 진입은 주호가 목표로 진입 시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공간으로, 머물러 있기보다는 이동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동 목적을 두는 동시에 다른 행위의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다면, 집합주택의 진입 공간 기능의 새로운 가치를 마련 할 수 있다.

‘얀 겔(jan Gehl)’이 말한 도시디자인에서 옥내 활동을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장 되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그 외 활동을 옥외 활동을 구분 하였다.²⁾ 도시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간이라면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집합주택은 축소된 도시 개념을 적이 가능하다.

개인공간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공간 활동은 옥외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얀 겔(jan Gehl)’이 이야기한 옥외 공간 활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옥외 공간 활동을 필수적 활동, 선택적 활동, 사회적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조사 대상인 초고층 아파트는 공동으로 거주를 위한 용도인 만큼 필수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 선택적 활동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세 가지 활동과 진입공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고 자한다.

2.1. 필수적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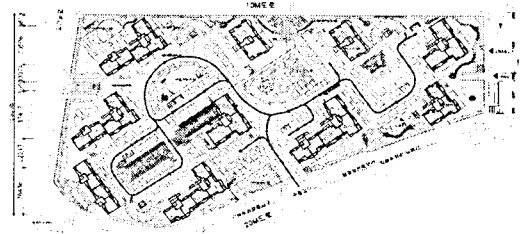
필수적 활동은 어떤 목표점에 이동하는 행위이고, 단지 안에서는 진입 공간을 이용하는 행위이다. 필수적 활동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때 적합한 조건은 무엇보다도 접근이 안전하고 편리 할 때, 필수적 활동의 기본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림 2>

2.2. 선택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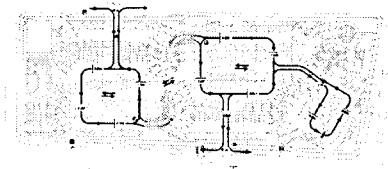
선택적 활동은 사회적 활동은 다른 자극 요인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행하는 활동이다. ‘얀 겔(jan Gehl)’의 옥외 공간이 선택적 활동에서 보면 ‘길거리를 서성이거나’, ‘햇볕을 쬐는 등의 행동’을 ‘선택적 활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곧 환경이 선택적 활동을 유도 한 것이고,



<그림 2> 필수적 활동 <그림 3> 선택적 활동 <그림 4> 사회적 활동



<그림 5> 'D' 단지 -지상 주차장도로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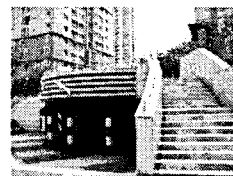
<그림 6> 'L' 단지 -지상 주차장 도로체계



<그림 7> 'D' 단지 주출입구



<그림 8> 'L' 단지 주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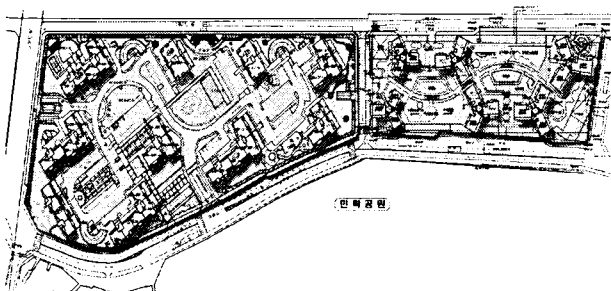
<그림 9> 'D' 단지 보행로 주출입구



<그림 10> 'L' 단지 보행로 주출입구

목표를 가지는 것 보다 자극의 요인이 있어야 한다. 초고층 사회적 활동 또한 의도 하지 않은 우연한 공동 모임인 것이다.

이 두 활동은 환경의 요인이 작용 할 때 즐기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아파트의 진입 공간에서 말한다면, 이동할 때 ‘필수적 활동’은 환경 기능의 평가 기준이라면, 나머지 두 활동은 생활 환경의 질적 수순에 대한 기준으로 집합주택의 평가가 가능해



<그림 1>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단지 배치도

2) ‘얀 겔(jan Gehl)’의 Life Between Building에서 옥외 활동에 대한 세 가지로 구분. 사회적 활동, 선택적 활동, 필수적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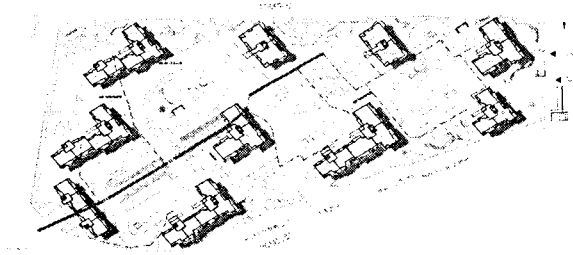
진다. <그림3> <그림4>

3. 주동 진입 공간의 사용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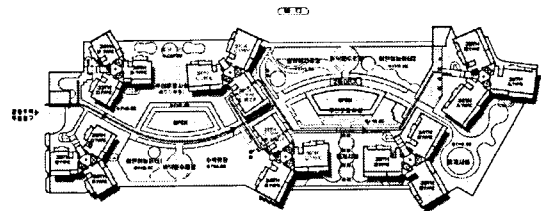
3.1. 차량 통행 방법조사

초고층 아파트 단지 진입 공간 중 차량의 단지 접근과 단지 내 순환에 대하여 단지별로 조사하고 그 다음 두 단지를 비교하여 조사한다.

D단지는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의 주출입구가 다르게 위치해 있다. 주차장의 주출입구 식별이 어렵고, 1층 단지의 사용과 보행로와의 교차부분이 많아 진행에서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편이다. 차량이 회전하는 경우는 자체 회전을 하여야 한다. <그림 5>



<그림 11> 'D' 단지 보행로



<그림 12> L단지 보행로

L단지는 1층은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1층 진입으로 지하까지 이동할 수 있으며, 차량 주출입구의 인지가 좋은 편이다. 도로 순환체계를 살펴보면 끊어지는 부분 없이 원활한 흐름을 취하고 있어 회전 시 편리하다. <그림 6>



<그림 13> D단지 주동 현관

3.2. 보행로의 통행 방법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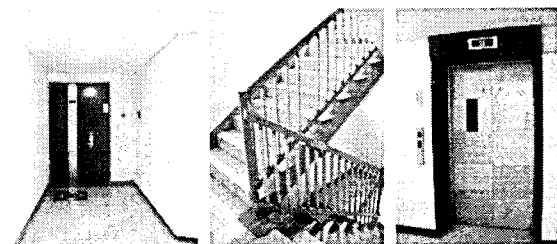
보행로는 단지 보행 접근과 단지 내 보행로를 구분하고 그 다음 두 단지 비교 조사한다.

D단지 보행로 진입은 단지를 진입할 때 차량의 주출입구와 분리가 되어 있어 차량에 방해 받지 않고 진입 할 수 있으므로 통행이 안전하다. 연결 방법은 외부에서 내부를 필로티나 조형 공간을 통해 계단으로 연결하고 있다.<그림 9> L단지는 상가 건물을 통해 단지의 주출입구가 시작된다. 보행자의 접근에 있어 보행로 식별이 힘들고 차량의 주출입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보차분리가 되어 접근하게 계획 되어있지만 실제 사용은 그렇지 못하다.<그림 10>



<그림 14> L단지 주동 현관

D단지는 단지 내에 보차분리가 되지 않아서 차량으로 부터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동별 조망의 건물 배치는 혼란스러워 주출입구를 통과 하면서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다. 원인은 주동의 진입 동선은 두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진입 동선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단지 내 가시거리가 넓다. <그림 11> L단지는 단지의 보행로는 1층 상가 출입구를 통하여 2층의 정원에 보행로가 있다. 보차분리가 되어 있다. 단 단지 내 보행로는 건물형태와 배치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협소하게 느껴져 답답하다. <그림 12>



<그림 15> D단지 계단과 엘리베이터 홀

3.3 주동 현관 진입 공간의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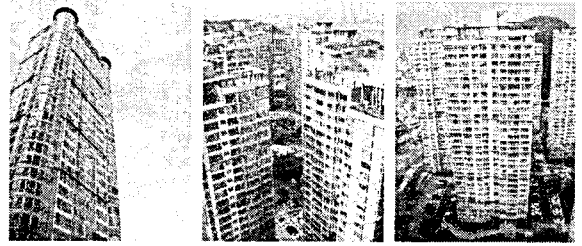
D단지의 주동은 입구가 대부분 건물의 'J' 형이 주동의 내부를 향해 위치해 있어 출입구의 인지가 힘들다. 주동의 현관에서 내부로 진입할 때 방향감이 모호해지는 편이나 나올 때는 외부



<그림 16> L단지 계단과 엘리베이터 홀

빛의 유입으로 방향 감각을 잃지 않지만, 주동의 지하 현관에서 출입이 모두 해당된다. <그림 13>

L단지는 2층의 현관은 상당히 밝아 방향을 인지하기에 문제는 전혀 없으나, 이용 빈도수는 극히 낮은 편이고, 주동의 주사용 현관인 1층 주차 전용 공간의 현관을 사용 하고 있어, 들어갈 때 보다는 나올 때 방향을 상실한다. <그림 14>



<그림 17> D단지 전경

3.4. 주동 계단과 엘리베이터 홀 공간의 조사

D단지의 계단과 엘리베이터 홀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단지 내부로 향해 있어, 자연광의 유입이 약하고 어두워 인공조명에 의존 하고 있다. 주동의 현관문을 개폐하지 않으면 방향의 인지가 어렵다. <그림 15>



<그림 18> L단지 전경

L단지 계단과 엘리베이터 홀은 자연광 유입과 전망에도 소홀하지 않으며,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홀의 오픈되고, 엘리베이터 홀에는 별도의 작은 창으로 자연채광을 조절 하였다. 이러한 영향은 주동의 문을 열었을 때 주호현관까지 채광과 조망의 영향을 주 수 있다. <그림 16>

4. 진입 공간 사용실태 조사에 대한 분석

두 단지에 앞서 조사 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확연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차량의 진행에 있어 L단지는 차량 전용 층이 있어 진행이 원활하지만 운전자와 보행자가 무의식적으로 2층 Garden을 이용하는 것이 쉽다. 반면 D단지는 차량의 순환은 불편이 있으나, 운전자가 1층에 주차를 할 경우 이용이 즉시 가능하다. L단지는 필수적 활동에 있어 편리 하지만 선택적 활동의 요인은 줄어들고 L은 그의 반대이다.

보행로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D단지는 보행로의 연결은 매끄럽지 못하고, 차선과 교차 되는 부분의 발생으로 위험성이 높아 필수적 활동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반면 선택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의 자극 요인은 많은 편이다. 예를 들면 분수대, 놀이터 등이 보행로와 자연스럽게 접해 있어 활용의 기회가 생기거나, 필연 또는 우연한 만남의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활동도 빈번 해진다. L단지 경우 보행자들이 대부분 1층 차량 진입구나 상가를 통해 진입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다. 1층 상가의 이용이나 단지 외부출입을 이용하기 위해 2층 Garden을 이용 하지 않았다. 이는 건물에 내부에 진입하여 굳이 외부로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놀이터나 휴게공간은 선택적 활동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사회적 활동은 의도적 일 때 가능하다.

주동의 현관인 경우는 두 단지 모두 세 활동에 만족을 시키지 못한다. D단지의 경우 선택적인 활동에 대한 요소는 없고,

<표 1> 건축공간론 발전기의 공간분류와 인식개념

	형 태	필수적 활동	선택적 활동
차량의 진입 공간	D 단지	보차분리가 되지 않아 안전성이 떨어짐	단지조경 이용가능성이 높음
	L 단지	보차분리가 됨.	운전자에 대한 자극요인 없음
보행자 진입 공간	D 단지	주출입구 보차분리, 단지 내 보차분리 안 됨.	주출입구의 자극 요인 높음, 단지 내부에 높음
	L 단지	주출입구의 접근성이 떨어짐, 단지 내 보차분리.	주출입구 접근성 상가 이용만 가능, 자극 가능성이 낮음.
주동 현관	D 단지	양호	낮음.
	L 단지	양호	낮음.
계단 엘리베이터 홀	D 단지	낮음.	낮음.
	L 단지	높음	높음.

필수적 활동의 요인은 출구로 이용 될 때 만 해당 된다. 반면 L단지 2층 현관에서 세 활동을 충족시킬 환경 가능성은 있지만, 보행자의 단지 최초접근에서 이미 필수적 이용도가 떨어져있다. 1층 현관인 경우는 L단지는 D단지와 반대로 입구로 사용 될 때 만 사용이 양호하다.

계단과 엘리베이터는 주동의 수직 진입 공간으로서 이 부분이 소홀해지면 주호의 고립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L단지는 자연 채광으로 인해 필수적 활동을 돕는 동시에 외부 조망은 선택적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D단지의 경우 필수적 활동은 인공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고층으로 오를 수록 고립 된 느낌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지의 디자인이 원인이기 보다는 건물의 디자인에서 오는 직접적인 원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5. 결론

전체적으로 보면, 단지 형태로 인한 확연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동일 단지에서도 진입 공간 별로 사용 실태가 일치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처음 계획에서 서로 다른 문제점을 인식 하고, 인식한 공간 외. 나머지 공간에 대해 소홀해진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세대의 조망과 단지 내 Garden에 중점을 두었던 D단지와 L 단지인 경우는 단위세대의 편리성과 프라이버시를 강조한 계획 인 것을 추측이 가능해진다. 때문에 '선택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의 기회를 많이 잃어버리는 부분이 증가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필수적 활동에 중점을 둔 L단지는 사용을 유인하는 방법에서 미흡하고, D단지의 기능적 환경 계획에는 처음부터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두 단지의 결과를 접목해 봤을 때 계획에 있어 보완 가능성을 찾을 수가 있다. 초고층 아파트 단지의 진입공간과 공용공간이 개선된다면, 필수적 활동과 선택적 활동, 사회적 활동 모두 충족이 가능해 질 것이다.

참고문헌

1. 고윤영·김 역, 공동주택의 공용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통권171호, 2003. 1.
2. LIFE BETWEEN BUILDINGS by Jan Gehl 2001. 역자 김진우·이성미·한민정, 도서출판 푸른솔, 초판, 2003.
3. 박은주·심재현·김영옥·정성문, 주상복합아파트 단지의 데크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통권194호, 2004. 12
4. 조영태·양동양, 공동주택 필로티 공간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통권 171호, 2003년 1월.
5. 최열·임하경, 초고층아파트 공공공간의 범죄불안감 특성 분석,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통권201호, 2005.7.